

아침 첫 발 디딜 때 통증... 스트레칭 운동 치료 효과

건강 바로 알기 족저근막염

이근배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발바닥 뒤꿈치 통증은 매우 흔한 질환이며, 가장 주된 원인은 족저근막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호발 연령은 40세에서 60세 사이이며 약 30%에서 양측성으로 발병하나 성별에 따른 유병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족저근막은 탄성이 적은 구조물로서 최대 인장 길이는 전체의 약 4%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탓에 보행 또는 달리기 등의 동작 시에는 높은 긴장력이 족저근막 부착부인 발 뒤꿈치뼈(종골)에 가해지게 된다. 그 외에 편평족이 있는 경우에는 족부 내측 아치가 낮아지고 불안정해져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력이 가해지며, 아킬레스건의 구축이나 과도한 달리기, 딱딱한 바닥의 신발 등이 족저근막염의 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다.

◇증상과 진단 및 검사-통증은 대부분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대개 발바닥 뒤꿈치 중앙부 내측에서 시작하며,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나 휴식 후 일

편평족·과도한 달리기·딱딱한 바닥의 신발 등이 유발 인자 40~60세 사이 많아 ... 비수술적 운동 치료로 대부분 호전

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반면 계속해서 보행을 하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 증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은 임상적인 증상 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초음파 검사는 진단에 가장 유용하며, 족저근막의 비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족저근막의 두께는 4mm 이하로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이상의 비후를 보일 경우 족저근막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x-ray 검사에서 관찰되는 종골 골극(Heel spur)이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만성 통증의 경우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족저근막 섬유종증, 종양 및 감염 등의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와 운동-족저근막염은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성공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질환이 호전되는 경우에도 수개월의 기간에 걸쳐 비교적 천천히 회복되므로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휴식, 스트레칭 운동,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및 실리콘 뒤꿈치 컵과 깔창(Insole)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6주 이상의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맞춤형 깔창 및 아직까지 논란은 있으나 혈소판 풍부 혈장(PRP) 주

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족저근막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등산, 달리기 등의 활동은 초기에 줄이도록 해야 하며, 대신 비체중 부하 운동으로서 고정식 자전거나 수영과 같은 운동을 권장한다. 이러한 치료로 3-6개월 내에 약 80-90%의 환자에서 호전을 보이나, 증상의 호전이 더디거나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또는 수술적 치료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

스트레칭 운동은 가장 쉽게 시행할 수 있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이 포함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직전이나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시기 전에 시행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은 한 손으로 발목과 족지를 최대한 잡아끌고서 다른 한 손으로 긴장된 족저근막을 마사지하며, 1회에 10초 이상 유지하고 10회를 반복해 이를 하루에 3세트씩 시행한다.

체외충격파 치료의 기전은 충격파로 조직에 손상을 주고 신생 혈관을 유도해 치유가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비침습적이며, 회복 기간이 짧고 외래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 치료의 만족도는 약 60-95%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단 합병증으로 시술에 따른 통증이 따를 수 있고 국소적인 부종이나 저린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근배 정형외과 교수가 앓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발바닥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수술적 치료는 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족저근막 막 부분 유리술(Plantar fascia partial release)을 시행하며, 최근에는 내시경을 통한 최소침습 수술도 소개되고 있다. 또

한, 비복근 또는 아킬레스건 단축은 족저근막염 환자의 약 57%에서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 경우에는 비복근-아킬레스건 연장술을 시행한다. 족저근막염은 비수술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되며, 편안한 신발 및 적절한 체중조

절과 함께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족저근막염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대구·경북 코로나19 환자 치료...조선대병원에 후원 잇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대구·경북 중증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중훈)을 위한 따뜻한 격려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익명을 요구한 광주 시민과 전주교 광주대교구청 및 닥터칼스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학운동 상당, 사랑의씨튼수녀회, 털보의 커피놀이터, 카페Star, 광주경찰서, 서울병원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등 7곳에서 조선대병원 의료진을 위한 후원금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학운동 상당과 사랑의씨튼수녀회는 선별진료소와 문진소에서 광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교직원에게 과일과 음

료, 빵 등을 선물했다. 또한 카페Star(백운동 소재)와 털보의 커피놀이터(동명동 소재)는 밤낮없이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커피를 전달했으며, 특히 털보의 커피놀이터는 매주 1차씩 700잔 분량의 커피를 기증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및 간호사회도 조선대병원 후원 행렬에 적극 동참했다.

광주경찰서(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2일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을 통해 과일, 떡, 음료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조선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서울병원간호사회와 광주시 간호사회 역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간호에 매진하고 있는 조선대병원 간호사를 위해 과일과 먹거리를 후원하며 해당 부서 간호사들의 건강과 확진 환자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노경영 조선대병원 총무부장은 "광주 지역 여러 단체와 시민의 후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이 되고 있다"며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메르스'와 전쟁했던 간호사

'코로나19'와 전쟁 치르는 간호사들 격려

지난 2015년 전남대병원 국가지정을 압격리병동에서 '메르스'와 전쟁을 치렀던 간호사가 '코로나19' 퇴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격리병동 간호사에게 격려메시지를 보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철아 간호사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라고 답해 화제가 됐던 그가 지난 10일 다양한 과일을 꺾어 담은 이쁜

바 과일컵 30여개를 가지고 격리병동을 격려차 깜짝 방문 한 것이다.

양 간호사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장기화 추세에 있어 격리병동에서 고생하고 있을 동료들이 생각나 응원 차 들렀다"면서 "5년 전 나에게는 큰 힘이 됐던 선배들의 격려를 받은 대로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메르스 전사'가 '코로나 전사'에게 보낸 이번 격려는 그간 사회 각계로부터 받았던 성과와는 또 다른 감동이자 위로가

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옛 '전사'를 맞이한 간호사들은 과일을 먹으며 모처럼 달콤한 휴식과 함께 동료의 격려에 더욱 힘을 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금 15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격리병동에는 메르스 당시 양 간호사와 같이 근무했던 후배 간호사가 3명이나 있다.

한 후배 간호사는 "선배의 갑작스러운 격려에 놀랐고 메르스 때 같이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나 가슴 뭉클했다"면서 "선배의 격려에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갖고서 한치의 실수 없이 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9타경 4106	1	해남군 해남읍 구2길36, 비동 12층 12021 아파트 [채시대면적] 84.8㎡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2019타경 3493	2	완도군 노화읍 통산리 855 502㎡ 완도군 노화읍 이포동산311번길 5-1 99.94㎡	대 농가주택	109,579,100 109,579,10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3714	4	해남군 마산면 송곡리 617-2 1160㎡ 채시외 외 창고 등 85.6㎡	전	41,977,300 41,977,30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3721	1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232 483㎡ 채시외 가수 등 63.7㎡	대	126,325,000 126,325,00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50901	1	완도군 막산면 해동리 339-3 174㎡ 채시외 다용도실 등 31.5㎡	대	31,806,000 31,806,00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50744	2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238 483㎡ 채시외 다용도실 등 239 218㎡	대 구거	11,730,400 11,730,40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2988	1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산75 1460㎡ 채시외 다용도실 등 50 605㎡	대 대	19,441,000 19,441,000	일괄매각, 분묘소 채합,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3080	1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산91 15868㎡ [공유 자랑출원지분34분의1전부]	임야	12,823,679 12,823,679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가능]
2019타경 3493	1	완도군 노화읍 통산리 874 649㎡	전	8,437,000 8,437,000	분묘소채합,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3585	1	해남군 황산면 송촌리 756 1980㎡ [공유자 이정애, 이정숙, 이상진, 박영숙지분8분의1 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임야	44,465,300 44,465,3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가능]
		동소 756-3 1581㎡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동소 756-4 840㎡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동소 756-5 1405㎡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동소 756-6 1983㎡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동소 756-2 1416㎡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45,723,4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가능]
		동소 756-7 1837㎡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45,723,400	
		동소 756-8 1657㎡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동소 756-9 1693㎡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동소 756-10 1986㎡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동소 756-11 1501㎡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2019타경 3714	1	해남군 마산면 송곡리 497 777㎡	전	11,856,7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97-9 76㎡	도로	11,856,700	
		동소 618-1 1451㎡	전	21,627,1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618-2 317㎡	전	21,627,100	
		동소 644-1 2489㎡	전	34,597,1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매각조건

3. 주의사항

4. 기타사항